

東洋의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

後漢의 비판적 科學思想家

전국시대를 특정짓던 음양오행설과 道家의 神仙사상 등 다양한 요소가 통일된 중국을 지배했다. 이와 같은 漢大의 미신적인 풍토를 배격하고 나선 대표적 사상가가 王充(27~100AD)이다.

그의 글 85편은 오늘날 <論衡> 속에 남아 있는데 이 책은 당시로서는 가장 비판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해도 좋을 정도의 날카로운 비평으로 되어 있다.

王充은 그 나름으로는 자기가 살던 시대의 非合理的인 사고방식에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자기가 이 비판서를 쓰게 된 동기를 “한 마디로 말해 나는 거짓을 미워하기 때문”(疾虛妄)이라고 말한다. “옳은 것이 크게 여겨지고 거짓이 참인듯 여겨지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까보나?”고 반문한 王充은 이럴 때마다 자기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뛰고 붓을 잡은 손은 떨린다고 말한다. “이들을 비판하는 때에는 마음 속에서 검토하고 사실과 대조해 본 뒤 증거를 제시하여 그 거짓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王充의 <論衡>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은 “어떻게 이를 증명하는가?”(何以驗之)라는 표현이다. 어떤 문제에 관해서나 그는 당대에 널리 믿어지고 있던 통설을 소개하고는 그것이 틀린다면 자기 주장하는 올바른 생각을 설명한다. 여기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어떻게 이를 증명하느냐고요?”라는 표현인 것이다.

王充은 20세기 초 胡適같은 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특히 중국에서 唯物論사상

가로서 아주 높이 평가되고 있다.

王充은 꼭 反佛敎의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유학자들은 맹렬히 비난했다. 분명히 道家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는 특히 董仲舒 같은 대표적 유학자들이 유교를 음양오행이나 기타 織繚說 등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王充은 天과 人과 自然을 보는 보다 合理的인 태도를 들고 나선 것이었다.

이미 전에도 소개한 것처럼 董仲舒같은 사상가는 有神論의인 墨子의 사상을 받아들여 하늘(天)이란 그냥 푸른 것 이상의 존재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前漢 시대의 儒學이 天을 人格神으로 인정한 것은 그럼으로써 天命사상을 발전시키고 이로써 王權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王充은 道家의 天사상을 부활시켜 天은 아무 의지도 가지지 않은 푸른 하늘일 따름이라 주장한 것이다. 입도 귀도 가지지 않았고 아무 감각기관도 갖지 않은 天은 無意無心하며 따라서 天은 “無爲”라는 입장이다. 天道는 無爲自然이라는 道家의 설이 옳다고 그는 단정짓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은 “有然”의 존재로서 天과는 다르다는 것이 王充의 생각이다. 天과 人을 이렇게 구별해 보려는 王充의 태도는 天人相類와 天人合一을 주장하는 董仲舒와 정반대라고도 함축하다.

天의 神性を 부인하고 그 “無爲”(의식적으로 무슨일을 하려하지 않는다는 뜻의 道家의 기본사상)를 주장한 王充은 오늘날 중국 고대 최고의 無神論者로서 중국학자들 사이에 높이 평가된다. 사실 그의 無神論은 天에 관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당시 사람들이 대개 믿고있던 땅위에 있는 여러가지 귀신에 대해서도 그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 …… 우리는 흔히 現代 發明科學은 17世紀 이후 西洋에서 始作된 것의 延長으로 東洋의……○
- ……發明科學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
- ……이다. 發明科學史는 西洋의 것만이 아니라 東洋의 것도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특히 東洋 發明科學史 중에서도 지금 우리의 血管속에 흐르고 있는 韓國 發明……○
- ……科學史의 背景을 이루는 中國의 發明科學의 傳統에 이해가 극히 重要함을 느끼게……○
- ……된다. ……○
- ……이와 함께 佛敎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印度의 自然……○
- ……觀과 우리와 비슷한 傳統에 속하면서도 재빨리 近代 發明科學과 技術의 수용에 成……○
- ……功하여 先進國으로 成長한 日本의 近代 發明科學의 발달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
- ……이에 本誌는 「韓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에 이어 「東洋의 發明」의 뿌리를 追……○
- ……跡해 보았다. ……○ <編輯者註> ……○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면
서 王充은 자기 無神論을 여러가지로 증명해 보인다.

재미있는 주장 몇가지만 들어보자.

“사람은 物이며 다른 物도 또한 物이다. 다른 物(이
경우 동물을 연상하면 좋을 듯)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는데 같은 物인 사람만이 죽어서 홀로 귀신이 될 수
있겠는가?”

“설령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존재할 수 있다
고 하더라도 그 귀신은 사람이 보던 벌거벗은 상태여
야만 될 것이다.”——의복에는 영혼이 없으니가 사람
만 영혼으로 남을 것이고 의복은 모두 썩어 없어졌다
면 死者의 귀신은 모두 벌거숭이일 수 밖에 없다. 그
런데 귀신을 본 사람들은 벌거숭이를 본 일은 별로 없
다는 것이 王充의 주장이다. 귀신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王充이 든 또 하나의 예는 부부에 관한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부정에 크게 분
노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부중 한 사람이 죽고 나머
지 사람이 재혼을 해도 죽은 귀신이 그 배우자에게 禍
를 내리는 일은 없다. 귀신이 정말 있다면 사랑하던
자기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모양을 그냥 참고 있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天의 神性を 부정하고 나아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한
王充은 인간도 별것 아닌 자연물에 불과하다고 내세운
다. 유교의 근본사상 하나가 지극한 人間中心思想임을
본다면 王充의 이 부분은 그야말로 反儒敎의이라 하겠
다. 이미 앞에도 인용한대로 그는 인간이란 별 수 없
이 다른 동물이나 같은 物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사람은 벌레와 마찬가지로도 말한다.——
“사람이란 또한 벌레다. 사람은 벌레가 먹는 것을 먹
고 벌레 역시 사람이 먹는 것을 먹는다”(人亦虫也 人

食虫所食 虫亦食人所食).

인간이나 벌레가 같은 것을 섭취하여 존재하는 것이
라던 그 사이에 무슨 근원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王充의 주장은 극히 唯物論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중공의 학자들이 그를 중국 고대의 대표적 唯物論
思想家로 꼽는 이유를 이해할만하다. 인간이 다른 동
물이나 마찬가지로라는 그의 주장은 인간이 天地也間에
서 살고 있음은 마치 이나 비류이 옷속에서 살고 개미
가 흙속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된다. 따라서 이
와 비류 또는 개미가 옷사이 또는 구멍속의 氣를 마음
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天地사이의 氣를 뜻
대로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다.

王充의 이런 태도는 일종의 運命論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의 글 속에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宿命이 있다는 투의 체념이 흐르고 있는 듯도
하다. 따라서 인간이 天에 무엇을 빌어본다는 것은 허
황된 일이다. 天은 이미 아무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으나 비류 天이 하느님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天
이 인간의 祈願을 알아들을 수는 없다는 것이 王充의
주장이다. 마치 이나 비류이 아무리 기도하고 빌어 본
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天)도 인간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계속>

新 刊 案 內

발 명 특 허 창 업

金寬衡 · 朴春基 · 朴春燁 著

규 격: 국관 386면

가 격: 9,500원

판매처: 韓國發明特許協會資料販賣센터